

이스빠노-루주(Luso)아메리카 관계사 속에서의 반다오리엔탈 독립 연구*

최해성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최해성(2013), 이스빠노-루주(Luso)아메리카 관계사 속에서의 반다오리엔탈 독립 연구.

초록 '브라질에서 독립한 스페인어권 국가',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며, 비전형적인 독립과정을 지닌 지역',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에 가장 유사한 국가', '이베리아 양 제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흔치 않은 지역' 등 반다오리엔탈의 굴곡진 역사를 표현하는 수식은 매우 다양하다. 19세기 초반의 반다오리엔탈은 매우 역동적이면서 유동적인 시공간이었다. 인접한 브라질의 남쪽 경계도 불안정하였고,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도 아직 형체를 드러내기 전이었으며, 반다오리엔탈이 독립국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혹은 인접한 여러 지방들이 서로 단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공간이었다. 더욱이 반다오리엔탈은 예로부터 이베리아 두 제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해가 충돌한 지역이며, 그 관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플라타 연합주)로 이어져 19세기 내내 갈등과 조정을 되풀이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연구에서 반다오리엔탈은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특수한 일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 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하였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이베로아메리카사, 즉 이스빠노-브라질(루주아메리카), 스페인-포르투갈의 통합적 역사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본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 통합적 시각의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이베로-루주아메리카의 관계 속에서 반다오리엔탈(우루과이)의 독립과정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핵심어 이베로아메리카의 독립과정, 우루과이 국가건설, 반다오리엔탈, 라플라타 연합주, 시스블라치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세 개의 항구 리우데자네이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는 내륙 평원의 호세 아르티가스 혁명군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과 죽음은 세 도시 편이었고, 아르티가스의 부하들 대부분이 죽어갔다. (중략) 대지주들은 항구의 상인들과 공동 전선을 뚫고, 혁명군 사령관 아르티가스는 연이은 불행과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운 좋게 살아 남아 변함없이 그를 따르는 원주민과 흑인,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부하 대장 안드레스 라토레 휘하의 얼마 안 되는 gaucho가 혁명군대의 전부이다.

갈레아노, 『불의 기억 2』 201

I. 우루과이의 독립 기원 논쟁과 역사 · 지리적 특수성

1930년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한 나라는 우루과이였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 역사적인 행사가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개최된 것이 의외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루과이는 축구 세계 최강국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¹⁾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들을 성공시킴으로써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었다. 20세기 초 호세 바뜨예 이 오르도네스(José Batlle y Ordóñez)의 주도 아래 정치안정, 경제성장, 노동 · 인권 관련법의 확충 등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을 이뤄냈고, 그 자신감이 국제대회의 유치로 표현된 것이다.²⁾ 게다가 1930년에 독립 100주년을 맞는 우루과이로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명분은 없었으며, 새롭게 건설된 월드컵 주경기장에 ‘백주년 스타디움(Estadio Centenario)’라는 이름을 붙여 그 의의를 분명히 했다.³⁾ 결승전에서 줄리메컵을 높이 치켜든 우루과이는 초대 개최

1) 우루과이는 1924년 파리 올림픽,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의 축구종목에서 연속 우승하며 뛰어난 실력을 나타냈다(Goldblatt 2006, 244-247).

2) 남미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이러한 발전은 우루과이를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게 했다(Aínsa Amigues 2007, 89-90).

3) 당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리적 거리에서 오는 부담으로 남미 개최를 반대하였으나, 우루과이는 참가국 선수단에게 이동 및 체제 경비의 지원을 약속하며 대회를 유치하였다. 1929년 대공황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대회 개최비용을 감당하고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개최 후보국들 중에서 우루과이가 유일하였다. <http://www.fifa.com/worldcup/archive/edition=1/overview.html>(2013.06.20).

국이라는 명예와 함께 초대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독립 100주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러한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듯, 우루과이는 공식적으로 독립의 해를 1830년으로 받아들이고 축하해왔다. 이 연도를 독립의 원년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해에 최초의 헌법이 선포되어(7월 18일), 반다오리엔탈(Banda Oriental)이라는 지방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전환되고, 오늘날 우루과이라 불리는 근대 국가의 초석이 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 헌법선포일을 독립의 날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일자를 독립일로 기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33인의 오리엔탈 지역 독립투사들(Treinta y Tres Orientales)’이 브라질의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을 선언한 1825년 8월 25일, 또는 브라질-아르헨티나 전쟁이 종료되고 형식적인 독립을 획득한 1828년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립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외부로부터 주어진 독립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보편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잠시 사그라지는 듯했던 독립기념일에 관한 논쟁이 근래에 또다시 뜨겁게 되살아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 속에서, 2011년 당시 대통령 파바레 바스게스는 ‘오리엔탈 해방과정 200주년(Bicentenario del Proceso de Emancipación Oriental)’ 기념행사를 열고, 1811년을 독립의 기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Demasi 2011). 왜 우루과이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독립기념일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루과이의 독립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간단치 않다. ‘어느 시점’을 기릴 것인가라는 문제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라는 문제로 전환되어, 국민의식(conciencia nacional), 국가 정체성(identidad nacional) 형성의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기 때문이다.

독립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루과이가 독립 기원 논쟁에서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독립과정과 매우 다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미묘한 파

장을 불러일으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독립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정치를 지배해오던 양당(블랑꼬 당과 꼴로라도 당) 체제 속에서 2004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3의 세력인 확대전선(Frente Amplio)이 선거에 승리하자, 전통적인 역사관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 인식과 해석이 필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Verdesio 2010, 76). 하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은 본 논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우루과이(또는 반다오리엔탈) 독립과정의 특수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19세기 초반의 반다오리엔탈은 매우 역동적이면서 유동적인 시공간이었다. 인접한 브라질의 남쪽 경계도 불안정하였고,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도 아직 형체를 드러내기 전이었으며, 반다오리엔탈이 독립국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혹은 인접한 여러 지방들이 서로 단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공간이었다. 더욱이 반다오리엔탈은 예로부터 이베리아 두 제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해가 충돌한 지역이며, 그 관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플라타 연합주)로 이어져 19세기 내내 갈등과 조정을 되풀이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 연구에서 반다오리엔탈은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특수한 일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 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하였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이베로아메리카사, 즉 스페인-포르투갈, 브라질(루주아메리카)-이스빠노아메리카의 통합적 역사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본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 통합적 시각의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이베로-루주아메리카의 관계 속에서 반다오리엔탈(우루과이)의 독립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반다오리엔탈 · 우루과이 지명의 유래 및 국호 논쟁

이른바 ‘반다오리엔탈’ 또는 ‘반다 데 차루아스(Banda de Charrúas)’라 불린 지역은 우루과이 강 동쪽, 라플라타 강 북쪽 지역을 지칭하며, 오늘날 우루과

이, 브라질의 히우그란지두술과 산파까파리나 일부를 포함한 영토에 해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지명이었던 반다오리엔탈의 유래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반다(banda)’란 18세기 당시 ‘측’, ‘편’이라는 의미의 ‘lado’와 동의어로 쓰였다고 보인다. 왕립학술원(Real Academia)에서 발행한 사전에는 “de la banda de allá del río, o del monte(강, 산 등의 저쪽 편)” 또는 단순히 “e la Banda de acá(이쪽 편)” 등으로 사용된 예가 나온다.⁴⁾ 따라서 반다오리엔탈은 정치적 중심지(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준에 따라 ‘우루과이 강 동쪽 지대’를 의미하며, 때로는 라플라타 강을 기준으로 북쪽지대(Banda Norte), 또는 간단하게 ‘반대편(la otra Banda)’라고도 불리었다. 어떤 시기에는 토착민을 지칭하는 이름과 관련하여 ‘차루아 족이 거주하는 쪽(Banda de los Charrúas)’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우루과이 지방(Provincia del Uruguay)’이나 ‘우루과이 개종마을(Doctrina del Uruguay)’과 같은 명명들이 옛 지도나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서, 편지 등에 등장한다. 이 기록물들은 17세기에 여러 차례 알토 우루과이(Alto Uruguay) 강 양안(兩岸)에 선교마을을 세운 예수회 수사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 지역은 포르투갈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긴장이 상존했던 곳이다. 17세기의 한 기록에는 우루과이 지방의 이름이 “그 곳을 관통해 흐르는 강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명이 나온다(Ana Frega 2008, 97). 우루과이 강은 1527년 산세비스피안 가보토(San Sebastián Gaboto)의 탐험 이후 ‘Uruay’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17세기 말에 현재의 이름으로 일반화되기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혼용되었다(Huruay, Uruguay, Uruaig, Urvaig 등).

우루과이라는 이름의 어원 및 의미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단지 원주민 과라니 어에서 기원했다는 점만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라 여겨지며, “우루(urú)라는 새가 서식하는 나라의 강”, “달팽이(caracol)의 강”, “여러 색

4) *Diccionario de la lengua castellana compuesto por la Real Academia Española*, 1791, p. 128(Ana Frega 2008, 108에서 재인용).

을 띤 새들의 강”, “우루 새의 꼬리(*cola del pajaró urú*)” 등의 가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지명들의 논쟁이 어원적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국가 건설과정에서 국호의 결정과 깊이 맞물려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루과이라 불리는 국가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라는 정식 명칭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짧지 않은 국명에는 간단치 않은 우루과이 독립의 역사가 투영되어 있다.⁵⁾ 그리고 이러한 국호 결정의 역사는 최근 라틴아메리카 독립 및 국민국가 형성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방법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즉, 이미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론으로 연구된 바 있는 특정 정치체제의 채택, 국경의 확정, 국가정체성의 수립, 국민 신화의 창조 등의 주제들이 국호의 역사(*historia del nombre del país*)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베리아 제국의 왕실에서 분리된 각각의 국민국가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선택하게 된 정부형태, 국경 확정, 정치적 정체성의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면, 정부 형태에 따라 정해진 경우 연방주의자들(*federalistas*)과 중앙집권주의자들(*centralistas*) 사이의 논쟁, 공화주의자와 왕정주의자 사이의 논쟁 등이 존재하듯, 국가의 건립이라는 문제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경계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식민지의 행정단위—부왕령, 총독령(*capitanía general*), 아우디엔시아(*audiencia*) 등—가 독립공화국들의 기준 영토가 되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라플라타 연방주(*Provincias Unidas de la Plata*)의 역사이다. 연방주의 구성은 부왕령 관할 면적의 일부와 합치할 뿐이며, 곧이어 여기에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분리, 독립한다. 1823년에 출범한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의 짧은 역사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생성으로 이어졌다.

5) 일부 언어학자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국명(國名)’과 ‘국호(國號)’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두 용어를 동의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 대상인 우루과이의 경우, 국호에 대한 논쟁은 우루과이 강 동안(東岸)에 대한 영토—아직 그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던—를 하나의 주권 정치단위로 조직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국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국가주의적 해석은 ‘지리적 결정주의’와 맥을 같이 하며 식민시대 초기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속성의 흐름을 띤다. 처음 반다오리엔탈에 도착한 유럽인들의 기록물(연대기, 보고서, 지도 등)을 대할 때에도 마치 그들이 이 지역을 현재의 국가를 상정해서 언급한 것처럼 해석한다. 한편, 그와 대척점에 있는 시각은 이러한 과거의 결정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비록 오랫동안 더디게 형성되었지만, 국가를 하나의 타고난 정치적 운명체”⁶⁾로 보려는 의도와 거리를 둔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역사성(historicidad) 속에서 연구하며, 기본적으로 복수적(plural)이고 이질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의 경우,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몬테비데오’와 그의 후배지에 거주하는 ‘오리엔탈인들(orientales)’ 사이의 반목이 국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 건설과정 초기에 ‘몬테비데오 국(Estado de Montevideo)’이라는 명칭이 대두되자, 지방을 대표하는 한 의원이 제헌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이전부터 수도에 대한 지방민들의 견제심”은 잘 알려진 바이며 “지금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당연한 듯 받아들여진 ‘오리엔탈(Oriental)’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Frega 2008, 101).

그에 대해, ‘몬테비데오’라는 명칭에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항구도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이 발견 초기부터 몬테비데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중앙집권주의적, 반아르띠가스주의적 성향이 담겨 있고, 지방에 대한 수도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몬테비데오라는 새로운 명칭을 통해

6) 민족주의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어니스트 겔너의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결정주의적 시각을 비판한 내용(Frega 2008, 95에서 재인용). 원문은 Ernest Gellner (1991), *Naciones y nacionalismo*, Buenos Aires: Alianza Editorial, pp. 70-71.

그 안에 거주했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독립’에 반대했던 과거를 덮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듯 복잡한 계산을 지닌 국호의 논쟁 속에서 서서히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라는 이름이 구체화되고 19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정식 국호로 채택되게 된다.⁷⁾

III. 국제관계 속에 형성된 몬테비데오

두 개의 거대국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놓인 반다오리엔탈은 지형적으로도 아르헨티나의 팜파와 이른바 ‘높은 땅(tierras altas)’, 즉 브라질을 이어 놓은 듯하다(Arnade 2009, 208). 오늘날 우루과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낮은 평원과 준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로부터 통행과 교역의 경계에 해당 되어 횡문화적(transcultural)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다. 1618년 스페인제국은

7) 하지만 국호가 확정된 뒤에도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 논쟁이 계속 뒤를 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오리엔탈인’이라는 표현은 독립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반 중앙집권주의’를 의미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끄리오요주의(criollismo)’, ‘토착(문화)주의(nativismo)’를 상징하는 용어로 변해갔다. 이들은 도시의 발전, 국가의 중앙집권적 성장,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 등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반면, ‘우루과이인들(uruguayos)’이라 불린 사람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도시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20세기로 접어들면 ‘오리엔탈인’이라는 명명의 지지자들은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전통과 역사적 과거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루과이인’이라는 표현의 옹호자들은 특정한 국가 프로젝트의 실현과 관련하여 ‘보편적’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타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꼴로라도 당(Partido Colorado)을 지지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루과요(uruguayo)’라 불렀으며, 그에 비해 블랑꼬 당(Partido Blanco, 또는 국민당 Partido Nacional)을 선호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오리엔탈’이라 부르며 차별화를 꾀하였다. ‘오리엔탈’이란 이름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 ‘아르티가스주의(artiguismo)’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통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블랑꼬 당은 원래 우루과이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출발했으며, 몬테비데오가 중심이 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을 중시한 이들은 20세기 초 ‘바뜨예(Batlle)’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프로그램에 저항하기도 했다. 블랑꼬 당 지지자들은 중앙집권주의를 거부한 역사에서 지방분권화와 우루과이 농촌의 발전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반면, 꼴로라도 당은 ‘호세 바뜨예 이 오르도네스’의 개혁에서 드러나듯 과거와 전통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건설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토착 지역주의보다는 보편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신국가를 창조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에는 정치적 함의와 관계없이 ‘oriental’보다는 ‘uruguayo’라는 지명형용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반다오리엔탈을 라플라타 직할행정(la Gobernación del Río de la Plata)에 편입시켰고, 이 지역에 경제적 부(富)를 가져다 줄 목축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비교적 유럽인들의 관심을 덜 받던 반다오리엔탈이 분쟁의 대상으로 부각된 직접적인 계기는 포르투갈인들이 168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맞은편 라플라타 강 유역에 ‘꼴로니아 두 사끄라멘투(Colônia do Sacramento)’를 건설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움직임에는 우루과이 강을 자연적 경계로 삼아 스페인령 아메리카와 접해 있는 경계를 확실하게 지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또한 알토 페루(현 볼리비아)의 무역, 특히 라플라타 강을 통해 해외로 운송되는 은(銀) 무역에 가담하려는 경제적인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파우스트 2012, 84). 이에 대한 반발로 스페인인들은 몬테비데오를 세워 포르투갈인들을 견제했다. 그러나 몬테비데오의 건설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주변의 평원지대는 인구가 희박했고, 원주민들로 이루어진 인디오 마을이나 엔꼬미엔다(encomienda)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역방어의 필요성에서 병력을 증강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스페인계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이렇듯 몬테비데오의 건설은 처음부터 군사적 목적이 뚜렷하였고, 통치의 최고책임자도 군사지휘관들에게 돌아갔다. 1724-30년 몬테비데오의 건설이 완료된 이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서 ‘우루과이 강 동안(東岸) 지대(la Banda Oriental del Río Oriental)’는 성장을 계속하여 직할행정 단위(gobernación)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Ribeiro 2012, 226). 이후 반다오리엔탈의 역사는 이베리아반도 두 제국 간의 힘겨루기의 역사가 되었다. 두 국가 모두 반다의 땅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며, 18세기 대부분의 시기동안 끊임없이 충돌과 협정을 반복하였다.⁸⁾

한편, 1765년 영국인들이 말비나스(포클랜드) 제도의 에그몬트 항구에 정착

8) 특히 꼴로니아 델 사끄라멘토를 둘러싼 전쟁과 평화협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 도시의 중심 광장은 주인의 교체와 전쟁 종료를 위한 조약의 무대가 되었다. 주요한 조약만 살펴보면 1681년 리스본 임시조약, 1715년 위트레흐트 조약, 1750년 마드리드 조약, 1763년 파리 조약, 1777년 산일데폰소 조약 등이 있다.

하자, 대서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진 스페인은 1769년 몬테비데오에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1776년 국왕의 칙령에 따라, 스페인에서 화물을 싣고 태평양 영토로 향하는 모든 선박들은 몬테비데오에 등록신고를 해야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실시하던 통관검사 대신 몬테비데오에서 통행허가장을 검사하게 되면서 두 도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몬테비데오는 전략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앞에 만(灣)이 형성되어 있고, 대서양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도시의 후배지에서는 수출용 축산물(양모)이 생산되었다(Ramos Escandón 2007, 46). 몬테비데오에 건설된 해군기지는 1777년 라플라타 부왕령의 첫 부왕으로 도착한 페드로 데 세바요스(Pedro de Cevallos)의 대원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약 9천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이 원정의 목적은 포르투갈인들의 손에 넘어간 꼴로니아를 회복하고, 이 지역에 경제적 변화를 일으켜 부왕령의 지위에 걸맞게 향상시키는 것이었다(Ribeiro 2012, 227).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벌어진 군사적 충돌은 1777년에 체결된 산일테폰소 조약으로 종결되었으며, 꼴로니아 델 사끄라멘토에 대한 스페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반다오리엔탈을 둘러싼 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몬테비데오 직할행정(gobernación montevideana)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인덴덴시아에 속하게 되지만, 왕실은 몬테비데오에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1791년에는 국왕의 칙령으로 남미대륙에서 유일하게 노예수입이 허용된 항구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몬테비데오의 엘리트들은 부왕령의 수도를 놓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1794년 영사재판소의 기능을 부여받고 부왕령 내의 모든 항구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한 도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였다. 몬테비데오는 부왕령의 수도에 속한 ‘하위도시’가 되었다. 이 무렵의 몬테비데오에는 여전히 군사상의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스페인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후배지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면서 메스티소화된 사회가 등장했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에 오랫동안 등장하는 이러

한 항구의 지위에 대한 경쟁은 독립시기에 양 도시의 진로를 결정짓는 정치적 동기가 되었다. 양 도시의 엘리트들 사이에는 상업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몬테비데오-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쟁관계를 희석시키지는 못하며, 이 경쟁관계가 향후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영토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Ribeiro 2012, 229).

IV. 우루과이의 독립과 이스빠노-루주 관계사

라틴아메리카 독립과정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섰으나, 20세기말과 21세기초를 지나며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연구의 영역도 독립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과거와의 단절 또는 연속성 문제, 라틴아메리카 제헌과정과 카디스헌법의 영향, 까우디오들의 의미와 역할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그 지평이 넓혀졌다. 연구자들 중에는 치아라몬테(J. C. Chiamonte), 추스트(Manuel Chust), 아니노(Annino), 하이메 로드리게스(Jaime Rodríguez) 등이 다양한 지역들을 서로 다른 자신의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⁹⁾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의 해방과정 중 에서 반다오리엔탈의 독립과정이 가장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도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하나의 국민국가로서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을 탄생시킨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하며, 비전형적이면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게 종결되었다. 여기서 비전형적이라 함은 아메리카 해방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크게 벗어

9) 이들의 선구적인 연구물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José Carlos Chiamonte (2004), *Nación y estado en Iberoamérica: el lenguaje político en tiempos de las independencias*, Buenos Aires: Sudamericana; Manuel Chust y Ivana Frasquet(2009), *Las independencias en América*, Madrid: Catarata; Antonio Annino y François-Xavier Guerra(coords.)(2003), *Inventando la nación: Iberoamérica. Siglo XIX*, México, D.F.: FCE; Jaime E. Rodríguez O. (coord.)(2005), *Revolución, independencia y las nuevas naciones de América*, Madrid: Fundación Mapfre Tavera.

났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된 우루과이의 영토는 식민 시기의 행정단위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독립과정에서는 실로 여섯 세력의 지배를 극복해야 하는 굴곡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1814년까지 스페인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반다오리엔탈은 그 후 라플라타 연합주(1816년까지), 포르투갈제국(1817-22년), 독립된 브라질(1822-28년), 일시적으로 영국, 그리고 다시 아르헨티나(1825-28년)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1828년, 3년간 지속된 브라질-아르헨티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양국의 평화협정에서 우루과이의 독립이 확보된다.

이렇듯, 우루과이는 다른 이스파노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런 과정을 거쳐, 스페인이 아닌 브라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¹⁰⁾ 그런데, 1810년에서 1830년까지 20년간의 과정을 다른 역사서술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스페인 식민 시기에서 독립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이 변화무쌍한 파노라마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그리고 있다. 이 과정 전체가 매우 모호하게 언급되거나, 축소 또는 압축되어 간략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반다오리엔탈의 독립은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라플라타연합주(아르헨티나)의 독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베리아 제국(스페인, 포르투갈)은 물론 영국, 프랑스의 이해관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까를로타 프로젝트와 이스파노 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적 시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까를로타 호아끼나(Carlota Joaquina)를 들 수 있다. 스페인 부르봉 왕가의 공주이자 포르투갈 황태자비였던 호아끼나는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섭정직을 추구하거나, 라플라타 지역에 자신이 통치하는 독립 입헌군주국 수립을 기도하였던 인물이다. 결과적으로 ‘까를로타 프로젝트’는 현실에서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베로아메리카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잘 보여준다. 까를로타 호아끼나는

10) 독립 당시 반다오리엔탈은 ‘시스플라치나(Cisplatina)’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에 속해 있었다. 이 시기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은 Sánchez Gómez(2004) 참조.

1808년 아들에게 왕위를 양여해야 했던 스페인 국왕 까를로스 4세의 장녀이자 후에 국왕에 오르는 페르난도 7세의 누이였다. 까를로다는 부르봉 왕가의 정략에 따라 1785년 어린 나이에 당시 포르투갈 왕실로 보내져 두 번째 왕자 주앙(João)과 결혼하였다.¹¹⁾ 그러나 곧 장남인 황태자가 사망하고, 여왕 도나 마리아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1792년 주앙이 섭정황태자가 되었고, 까를로다는 섭정황태자비로서 포르투갈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한다. 1807년 말 나폴레옹 군이 포르투갈을 침공했을 때 포르투갈 왕실의 브라질 이전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남편 동 주앙 6세였다(파우스트 2012, 109).

브라질에 정착한 까를로마 호아끼나는 모국 스페인이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들면서 까를로스 4세와 페르난도 7세 모두 프랑스 땅에 억류된 상황을 접하자, 이제 자신이 스페인 왕위를 계승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McFarlane 2012, 1). 호아끼나는 나폴레옹 군에 점령당한 스페인 본국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브라질과 가까이 있는 스페인령 아메리카, 특히 라플라타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왕위계승자로서 섭정직에 오를 권리가 있음을 표명하기 시작했다(Rubio 1920, 42-51). 그리고 곧바로 남편인 동 주앙에게, 나폴레옹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가족이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보낸다. 동 주앙은 포르투갈 정치에 깊이 관여한 자신의 부인과 갈등관계에 있었지만,¹²⁾ 이 요청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스페인어권 아메리카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깊은 관심을 보인다.

사실 동 주앙도 리우에 왕실을 안착시킨 후, 곧바로 스페인령 아메리카로 시

11) 까를로마 호아끼나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La Infanta Carlota Joaquina y la política de España en América*(1808-1812)에서 저자 Julián María Rubio는 까를로마 공주의 다양한 평가들을 소개하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면이 있으나 야심찬 성격에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꿈꾸는 성격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920, 14-15).

12) 동 주앙은 어머니 도나 마리아 여왕과 동일한 질병에 시달렸으며, 까를로마 호아끼나는 이를 이베리아 두 왕국의 통합 기회로 삼은 듯하다. 그녀가 스페인 왕실로 급히 보낸 서간에는 “자신을 지원해 줘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고 쓰여 있다. 서간의 원문은 Rubio(1920, 196-197) 참조.

야를 돌린 상태였다. 그는 폰텐블로(Fontainebleau)조약을 통해 나폴레옹의 포르투갈 침공을 위해 길을 열어준 스페인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동맹국인 영국과 협력하여 공격적인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다. 첫 목표물은 포르투갈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라플라타 부왕령, 그 중에서도 브라질 남부에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댄 만다오리엔탈이었다. 까를로파의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리우 정부는 한편으로는 영국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외무대신 소자 꼬명뉴(Souza Coutinho)을 파견하여 포르투갈의 보호 아래로 들어올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거절되자 외무대신은 까를로타에게 라플라타 부왕령의 섭정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권력층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 만약 까를로파와 협력관계에 들어선다면 자신들을 불안에 떨게 한 영국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McFarlane 2012, 2). 스페인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1806년에 영국의 아메리카 침략을 경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입장에서 동맹국 포르투갈이 라플라타 유역을 지배할 경우, 그 지역에서 자신의 무역을 보호하고 스페인령 아메리카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영국 내에서도 포르투갈-영국 연합군의 스페인령 아메리카 침공에 대한 지지여론이 형성되었다(Street 1967, 96-110).

실제로 까를로파 호아끼나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에 성명서를 보내 자신의 섭정을 제안한 것은 1808년 8월의 일이다. 그러나 라플라타 부왕령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정중하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Rubio 1920, 45-50). 하지만 까를로파의 제안이 모두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브라질의 일부 독립론자들은 까를로파의 섭정이 실현된다면 라플라타와 브라질이 이베리아 제국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까를로파를 중심으로 입헌군주국을 세워 그리

오요들이 유럽인들보다 우위에 서는 사회를 꿈꾸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우려한 포르투갈과 영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까를로타 제안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러나 까를로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략을 수정하여 계획을 재추진한다. 1809년 말 이후 스페인 본국의 혼란이 가중되는 속에서, 까를로타는 아메리카의 크리오요들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자신의 섭정이 스페인제국의 유지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1810년 5월 혁명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어선 평의회(Junta)는 그녀의 주장에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까를로타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 혁명 이후 그에 반대하는 몬테비데오 왕당파들이 까를로타를 중요한 동맹세력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페인제국의 일부인 라플라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까를로타의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까를로타는 이들에게 자금과 선물을 보내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녀에게는 몬테비데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 그 후 스페인과 아메리카 각지에 수립된 평의회에서 페르난도 7세에 대한 충절과 그의 복위가 표방되면서 까를로타 프로젝트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까를로타 호아끼나의 에피소드는 라틴아메리카 독립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당시 위기에 놓인 이베리아 제국의 해체 과정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등 외부 세력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었던 현실이 잘 드러난다. 또한 이베리아의 두 제국은 왕실의 혈연으로 연결되어 경쟁자이면서 조력자인 이중적 관계를 지녔다. 이는 어느 한쪽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까를로타의 프로젝트는 그러한 환경이 야기한 허황되면서도 강렬한 움직임이었다. 끝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카를로타 에피소드를 통해 독립운동 태동기의 브라질과 라플라타 지역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수아 슈발리에의 지적처럼 ‘라틴아메리

카 연구의 근본적 조건의 하나로서 국가중심의 역사관에서 경계를 없애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Chevalier 1983, 77).

2. 아르띠가스의 등장과 아르띠가스주의 역사서술의 명암

1808-1809년 이베리아반도의 혼란에서 비롯된 몬테비데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불안정은 더욱 증가되었지만, 반다오리엔탈의 독립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시기부터 형성된 몬테비데오-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쟁의식은 더욱 치열해졌다. 1808년 몬테비데오의 총독 엘리오(Francisco Javier Elío)는 새롭게 임명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왕을 인정하지 않고, 스페인 각지에서 지방평의회가 구성되는 예에 따라 독자적인 평의회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몬테비데오는 일시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관할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곧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월 혁명이 일어나 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의 의회를 수립하자, 몬테비데오는 이 새로운 체제를 거부하고 당시 본국 스페인에 형성된 통치체제를 따르기로 결정한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몬테비데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흔치 않게 스페인국왕의 통치권을 수호하려는 주요한 세력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¹³⁾

하지만 오리엔탈 인들은 곧 딜레마에 빠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페인을 인정하는 것은 또다시 스페인제국의 지배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몬테비데오 이외의 반다오리엔탈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조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반다오리엔탈 전체 영토와

13) 앞서 분석한대로 몬테비데오 건설 과정에서 스페인인들의 이주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몬테비데오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지는 현상이지만, 당시 몬테비데오 시민 가운데 스페인 혈통을 지닌 인구가 많아 친스페인적 성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반면, 몬테비데오의 배후지는 인구밀도가 낮고, 토착 원주민들과 혼혈을 이룬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무토지의 가난한 농민들로서 도시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Sánchez Gómez 2009).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1808년 움직임에 대해서는 Manuel Chust(coord.)(2007), *1808. La eclosión juntera en el mundo hispánico*, México: FCE에 다양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Ana Frega(2007, 242-268) 참조.

지역 gaucho들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몬테비데오 후배지 농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호세 헤르바시오 아르티가스(José Gervasio Artigas)였다. 한때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왕령의 군사지휘관이었던 그는 지방의 완전한 자치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해방운동을 주도하여 오늘날 국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¹⁴ 아르티가스는 gaucho와 농촌의 메스티소들을 조직하여 스페인의 지배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해 1811년 2월 26일 이른바 ‘아센시오의 외침(el grito de Ascencio)’을 발하고, 독립운동을 개시했다.¹⁵ 또한 이 운동은 농촌 후배지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중심도시 몬테비데오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몬테비데오 총독 엘리오는 아르티가스 군을 제압할 수 없자 포르투갈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는 엘리오의 잘못된 계산이었다. 오래전부터 반다오리엔탈에 관심을 보여 온 포르투갈에게 이 요청은 절호의 찬스로 받아들여졌다. 1811년 중반 반다오리엔탈에 정착한 포르투갈 군은 라플라타 지역으로 지배범위를 넓히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뜻하지 않은 위협에 몬테비데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대립관계를 청산하는 휴전협정을 맺는다. 어느 의미에서 친스페인계와 중앙집권주의의 결탁이라 할 수 있는 이 협정은 아르티가스와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르티가스는 자신을 따르는 주민들을 이끌고 인접한 엔뜨레리오스(Entre Ríos) 지방으로 대규모 이주를 감행한다. 이 집단이주는 우루과이 역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즉 스페인에게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게도 종속될 수 없다는 반다오리엔탈 내륙지역(몬테비데오 후배지)의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Ramos Escandón 2007, 47).

이베로아메리카에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반다오리엔탈은 아르티가

14) 우루과이의 역사에서 아르티가스는 절대적인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으나, 이른바 “상상의 역사(imagined history)” 속에서 그려진 인물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때 아르티가스가 지향한 것이 완전한 독립인지, 지방자치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적 역사서술을 비판한 연구로는 Carlos Real de Azúa(1991)가 있다.

15) 2011년을 독립 200주년으로 기념하자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독립의 기원이기도 하다.

스의 주도아래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주민대표 의회를 갖춘 ‘오리엔탈 주 (Provincia Oriental)’로 변모했다. 반다오리엔탈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권과 자주권을 지닌 정치적 단위가 된 것이다. 나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앙집권주의를 거부하는 주변 지방들과 연방제 성격의 연방동맹을 구성하고 헌법과 영토성을 갖추려 하였다(Reyes Abadie 1974, 3, 4장; Frega 1998, 119).

‘오리엔탈 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리우데자네이루 정부의 두려움과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816년 포르투갈 군이 또다시 이 지역을 공략하여 몬테비데오에 정부를 수립하자(1817), 아르띠가스의 위세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는 게릴라전을 펼치며 포르투갈 군에게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배하여 파라과이로 망명을 떠났고, 반다오리엔탈은 브라질에 병합되어 ‘시스플라치나’라는 명칭의 주가 되었다(Paulo Pimenta 2013, 5).

그러나 오리엔탈 주의 망명자들과 과거 연방동맹에 속해 있던 라플라타 연합주의 일부 주에서 반다오리엔탈을 탈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점차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도 이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브라질 지배하에 있던 반다 오리엔탈 내에서도 독립을 원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자, 1825년 과거 아르띠가스의 부관을 지낸 안토니오 라바예하의 지휘 아래 ‘33인의 오리엔탈 독립운동가’들이 브라질에 대항하는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라플라타 지역 연합에 편입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브라질 사이에 ‘500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투사인고 전투(1827년)에서 크게 패한 브라질은 군사적,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파우스트 2012, 135). 하지만 아르헨티나도 대통령이 실각하는 등 내부의 지도력 부재로 전쟁을 유리하게 종결짓지 못하였다. 그러자 1828년 자신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안정을 원하던 영국이 중재에 나서 마침내 양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시스플라치나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식민시기 종료에 관한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고전적 연구¹⁶⁾부터 최근의 연구¹⁷⁾에 이르기까지, 거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르띠가스나 아르띠가스주의(artiguismo)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세 헤르바시오 데 아르

띠가스(José Gervasio de Artigas)가 모든 우루과이 인들—지지 정당이나 이념,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에게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르띠가스와 뜻을 함께하지 않았던 세력들, 특히 몬테비데오 내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브라질에 합병되어 지배받던 시기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듯 보인다.¹⁸⁾ 이러한 현상은 브라질의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이 지배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만다오리엔탈(또는 시스펠라치나)을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우루과이는 다른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이 독립을 열망하는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1828년경에는 브라질 제국에 계속 속해 있기를 바라는 세력, 라플라타 연합주에 반환되기를 바라는 세력, 또는 스페인 식민시기의 권력을 그리워하는 세력, 심지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보호령 시절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들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존

-
- 16)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예를 들면, Francisco Bauzá(1897), *Historia de la dominación española en el Uruguay* (Edición en CD-Rom, Clásicos Tavera, Madrid, 2001), Pablo Blanco Acevedo(1901), *Historia de la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Montevideo: Barreiro y Ramos 또는 같은 저자(1929), *El gobierno colonial en el Uruguay y los orígenes de la nacionalidad*, Montevideo: Ediciones J. A. Ayala 등을 들 수 있다.
- 17) Washington Reyes Abadie(1994), *Artigas y el federalismo en el Rio de la Plata, 1810-1820*, Montevideo: Banda Oriental, 또는 Ana Frega y Ariadna Islas(eds.)(2001), *Nuevas miradas en torno al Artiguismo*, Montevideo: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등이 해당된다.
- 18) 우루과이에서 아르띠가스의 공헌과 의미는 분명하다. 하지만 한 신문의 칼럼이 말하듯 지나치게 이상화된 면이 있다. “열정과 논쟁의 인물인 아르띠가스는 우루과이에 서 손 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넘볼 수 없다”(Tomás Linn, “Ante una grandeza de medida humana, no divina,” *Búsqueda*, 2000년 9월 21일자). 또 다른 신문에는 “공식적인 아르띠가스는 오로지 미덕만 갖추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학교에서 노래 부를 정도이다. (중략) 아르띠가스는 이제 신화가 되어 한 세기가 넘도록 국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오리엔탈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모르면서 동시에 그를 이용해 갈 수는 없다.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들이 그에 대한 논쟁과 진지한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주장이 실렸다(Ramón Díaz, “Quién es Artigas,” *El Observador*, 2000년 9월 23일자).

재하였으며, 우루과이의 독립을 희구한 세력은 전체 주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면에서는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루과이는 1828년 독립의 지지 세력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런 독립국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루과이는 독자적인 정치·행정의 전통도 없었다. 스페인에서 해방된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부왕령의 수도였거나, 아우디엔시아의 중심이었거나, 인덴텐시아의 중심지로서 정치, 행정적 조직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부에노스아이레스 체제에 편입되어 있던 반다오리엔탈로서는 자립의 경험을 쌓을 기회도 많지 않았다. 독립지지 세력도, 독자적 행정 전통도 없고, 확정된 경계선도 없으며—국경선은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다양한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계속 변화한다—, 확실한 국호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국호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 것처럼, ‘몬테비데오 국(Estado de Montevideo)’, ‘몬테비데오 공화국(República de Montevideo)’, ‘오리엔탈 국(Estado Oriental)’, 또는 오늘날의 정식 국명으로 쓰이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등의 이름들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1830년경에는 국호에 대해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우루과이라는 독립된 영토가 1830년에 등장했지만, 하나의 국가로 확립되기까지는 느리고 긴 과정을 더 거쳐야 했다. 따라서 그 국가에 ‘알맞은’ 국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 자신들의 신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열정적인 과정이 이어졌다.

V. 결론

지금까지 반다오리엔탈이라는 특정 지역의 독립과 국가건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브라질에서 독립한 스페인어권 국가’,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며, 비전형적인 독립과정을 지닌 지역’,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에 가장 유사한 국가’, ‘이베리아 양 제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흔치 않은

지역' 등 반다오리엔탈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이 지역의 굴곡진 역사를 대변해준다. 1808년에서 1828년까지 최소한 여섯 세력이 순차적으로, 때로는 두 세력이 동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그 여섯 세력이란 스페인 제국, 포르투갈 제국, 일시적으로 영국,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혁명 정부, 브라질 제국, 아르헨티나 공화국 등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대로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취약한 정치적 단위였고, 서로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존재하면서 상호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구체제의 위기로 발생한 권력의 공백은 이베로아메리카의 내적인 재구성 과정을 낳았고, 그 속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들이 서로 경합을 벌였다. 다양한 주권 세력들 간에 전쟁이 발생했고, 지역적 공간(espacio regional)은 계속적으로 재편되었다. 어떠한 동맹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느 세력이 헤게모니의 중심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영토성의 수립과 해체를 반복한다. 이러한 영토성의 생성 변환 과정에서 전쟁은 동맹의 구성원을 결정하고 영토에 정치적 형상을 입히는 절대적 요인이었다. 특히 브라질의 군주주의적 특성과 라플라타 연합주의 자치주의적 특성이 반다 오리엔탈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자연적 경계나 역사성에 따른 합법적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었으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전쟁이었다.

한편, 우루과이 독립의 역사서술은 어느 의미에서 아르띠가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확인했다. 비록 그의 최종목표가 주변의 지방들과 함께 주권을 지닌 연방체를 수립하는 것이었지만, 포르투갈 군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물거품이 된 듯했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의 패배는 오히려 그의 선명한 주장(스페인에게도, 포르투갈에게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에 감싸여 국가의 윤곽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ibeiro 2011, 16).

1828년, 긴 전투에 고갈된 참전 세력들은 평화협상에 돌입했다. 영국의 참여 속에서, 이들은 하나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반다오리엔탈'은 마

침내 독립된 우루과이 공화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완충’ 국가의 건설이 국경을 맞댄 지역의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는 이 지역의 어느 한 국가(또는 세력)가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되었던 토지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약 20년에 이르는 분쟁이 끝난 후 남게 된 깊은 정치적 분열은 라플라타 강 지역 전체에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남겼다. 혁명과 독립은 식민지 구체제를 일소했으나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국가적 실체들(national entities)의 형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곧바로 1830년대와 40년대에 또 다른 갈등을 가져왔다. 이번의 갈등은 국제적 연합의 갈등으로 비화했다. 아르헨티나의 통합주의자(unitaristas), 우루과이의 콜로라도 당, 그리고 히우그란지의 공화주의자들이 연합하여, 그들 지역의 연방주의자, 블랑코 당, 그리고 왕정주의자들의 연합과 경쟁을 벌였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연합이 존재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수면 깊은 곳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본질을 잘 반영한다. 결국 우루과이를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은 파라과이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또 한 차례 거센 영토의 조정 국면을 맞는다.

결국 반다오리엔탈 독립의 역사와 라플라타 지역의 국가건설 과정은 이베로아메리카의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온전한 구조가 밝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차후 이베로아메리카 통합적 역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작은 시사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보리스 파우스트(2012), 『브라질의 역사』, 최해성 옮김, 서울: 그린비.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2005), 『불의 기억 2(얼굴과 가면)』, 박병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따님.
- Aínsa Amigues, Fernando(2007), “La utopía de la democracia en uruguay. Entre la nostalgia del pasado y el desmentido de la historia,” *América Latina Hoy*, núm. 47, pp. 87-99.
- Arnade, Charles(2009), “La génesis de Bolivia, Paraguay y Uruguay,” *Revista Ciencia y*

- Cultura*(La Paz), núm. 22-23, pp. 205-218.
- Chevalier, François(1983), *América Latina: de la independencia a nuestros días*, Barcelona: Labor.
- Demasi, Carlos(2011), “Actos del bicentenario carecen de rigor histórico,” *El Observador*, el 10 de octubre.
- Frega, Ana(1998), “La virtud y el poder: la soberanía particular de los pueblos en el proyecto artiguista,” en Noemí Goldman y R. Salvatore(comp.), *Caudillismos rioplatenses: nuevas miradas a un viejo problema*, Buenos Aires, Eudeba.
- _____(2007), “La Junta de Montevideo de 1808,” en Manuel Chust(coord.), *1808. La eclosión juntera en el mundo hispánico*, México: FCE, pp. 242-268.
- _____(2008), “Uruguayos y orientales: itinerario de una síntesis compleja,” en J. C. Chiaramonte, C. Marichal y A. Granados(compiladores), *Crear la nación: los nombres de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 Goldblatt, David(2006), *The Ball is Round*, New York: Riverhead Books.
- McFarlane, Anthony(2012), “Princess Carlota Joaquina and the Monarchist Alternative in Spanish American Independence,” Paper in the Conference *Liberalism, Monarchy and Empire: Ambiguous Relationships* (10 February 2012, Senate House, London) held by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Paulo Pimenta, João(2013), “¿A quién debería pertenecerle la banda oriental? Elementos para comprender la Independencia de Brasil a partir del Río de la Plata,” *Nuevo Mundo(revista digital)*, <http://nuevomundo.revues.org/pdf/65338>.
- Ribeiro, Ana(2011), “De las independencias a los estados republicanos(1810-50). Uruguay,” *Revista de la Asociación de Escribanos del Uruguay*, tomo 97, ene.-jun., pp. 15-42.
- _____(2012), “Territorialidad y ficción: ¿Una entente entre el foco españolista montevideano y la aislada Asunción,” *Revista Digital de Historia y Arqueología desde el Caribe*, pp. 224-248.
- Ramos Escandón, Carmen(2007), *Latinoamérica en el siglo XIX(1750-1914)*, México D.F.:UNAM.
- Real de Azúa, Carlos(1991), *Los orígenes de la nacionalidad uruguaya*, Montevideo: Arca.
- Rubio, Julián María(1920), *La Infanta Carlota Joaquina y la política de España en América*, Madrid: Imprenta de Estanislao Maestre.

- Reyes Abadie, Washington(1974), *Artigas y el federalismo en el Río de la Plata*, Buenos Aires: Hyspamérica.
- Sánchez Gómez, Julio(2004), “El tortuoso camino hacia la independencia de la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Los realistas en la Banda Oriental en los primeros momentos de la insurgencia,” en Manuel Chust(ed.), *Actas del Coloquio sobre la Independencia de América*, celebrado en la Universitat Jaume I de Castellón, noviembre de 2004.
- _____(2006), “La independencia de la Republica Oriental del Uruguay: los realistas en la Banda Oriental,” en Ivana Frassetto(coord.), *Basillas, cetros y blasones: la independencia en Iberoamerica*, Majadajonda: Fundación MAPFRE. pp. 57-92.
- _____(2007), “Y Uruguay...,” en M. Chust y J.A. Serrano(eds.), *Debates sobr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pp. 47-79.
- _____(2009), “Brasil y Uruguay: dos procesos de independencia íntimamente relacionados,” en, J. B. Amores Carredano(ed.),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un proceso resuelto?*, Vitoria: Universidad del Pais Vasco. http://gredos.usal.es/jspui/bitstream/10366/21655/1/DHMMC_Brasil%20y%20Uruguay.pdf.
- Street, John(1967), *Gran Bretaña y la independencia del Río de la Plata*, Buenos Aires: Paidós.
- Verdesio, Gustavo(2010), “El día de la independencia o doscientos años de incertidumbre: la indecidibilidad de una fecha en el Uruguay post-independencia,”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Año 36, No. 71, pp. 75-98.
- FIFA Homepage, <http://www.fifa.com/worldcup/archive/edition=1/overview.html>

최해성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marchoe@snu.ac.kr

논문투고일: 2013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0일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the Banda Oriental in Relationships between Hispano-Luso Americas

Hae Sung Cho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e, Hae Sung (2013),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the Banda Oriental in Relationships between Hispano-Luso Americas.

198

Abstract 'The only Hispanic country liberated from Brazil', 'a province that had the most atypical, complicated, and prolonged process of independence in the Iberian America', 'A nation most analogous to what is called "Imagined communities"', 'An unusual region in which the Iberian Empires clashed directly', and so on. There are various expressions to indicate the troubled history of the Banda Oriental.

199

In the early years of the 19th century, the Banda Oriental was a very dynamic and fluid space. The southern boundaries of Brazil were not yet determined; the Argentine as a state didn't yet be contoured;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at the Banda Oriental would be born as a independent nation; o even it was not strange to form a new country between contiguous regions; it was the very period of turbulence and uncertainty.

Moreover, the Banda Oriental was a zone in which the interests of two Iberian Empires clashed, and those relations were continued to their successors, Brazil and Argentina(o Las Provincias Unidas de la Plata), and conflicts and mediations repeated during the rest of 19th century.

In the historical research, the Banda Oriental contributes to the diversification of approaching methods by offering a specific example to the fundamental themes of independence and nation-state building, and awakens the necessity of the 'History of Ibero-America' overlooked until recently, that is the integrated historical studies of Hispano-Luso Americas(or Inter-Americas) including Spain-Portugal. This paper is a modest attempt to restore the integrated perspective of Ibero-America, and would analyze the independent process of the Banda Oriental within the relations of Ibero-Luso Americas.

